



29면에서 계속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놓으세요. 그렇게 놔 버린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느냐 이러겠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체도 공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색이 공했기 때문에 말도 공했고 뜻도 공한 겁니다. 전체가. 삼위일체가 다 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통해서 공부해서, 참 인내 있게 내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 삼천대천세계 이란다면, 벌써 이 지구덩어리가 500억이라는 그 숫자가 한테 합쳐져서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인데, 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를 한테 합쳐서 삼천대천세계가 된 겁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축소해서 이것을 비해서 가루로 떨어뜨려서 티끌 하나 떨어뜨리는 횡수가 지금 우리가 70평생이면 80평생이든 한 횡수가 가는, 그 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티끌 하나 떨어뜨려 놓은 그 횡수가 우리 한 생이라면, 그 얼마나 억겁광년을 거쳐서 도는 거기에 얽매이고 윤회에 그달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한생각에 눈썹 하나 지켜뜨고 눈썹 하나 내려뜨는 그 사이 한생각에, 삼천대천세계의 그 소용돌이의 얼음을 단번에 녹일 수도 있고, 한생각에 단번에 그렇게 억겁 년을 그달리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생각이라는 자체도 없는 것이 한생각입니다. 한생각을 냈다 하면 벌써 그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대로 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닐진대 승보(僧寶)도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삼체가 다 공해 버렸다 이겁니다. 공했기 때문에 색깔도 빛깔도, 또는 말조차도 뜻조차도 법조차도, 전부가 일체 공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전체 우주를 싸고 있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마음을 가깝게 두고도 그걸 못 믿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공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안에 있다. 부처님 안에 있는 것이 근본이요, 그 근본이 바로 마음이다 이래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않아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내고 이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합니다. 죽는 것을 살리려고만 애쓰면 이 저울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빛 광명이 딱! 번쩍 일어 나죠.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리는 것만 애를 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르게 양면을 다 놓으시는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인내와 정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 일체가 한마음을 알고 마음공부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스님께서는 수행 자체가 참이며 그냥 놓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그 놓는다는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며 죽을 각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기가 약한 사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노력 않고 그냥 놓는다면 그건 현실회피가 아닐는지요?

답: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 기필코 이것을 다 부숴야 되겠다 하고 인간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여유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뚱이 하나가 그대로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선장에 꿰어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같구요. 선장이 끌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배를 탄 중생들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살고 있어도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아주 가파른 곳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 잘 이끌고 가는 것을,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하고 안에서 뛰면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도 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건널 수 있겠

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생각을 잘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파도가 치든, 배가 뒤집어지든, 파도가 치겠으면 치고 배가 뒤집어지겠으면 뒤집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그냥 딱 '어허, 내가 공했는데 배를 탄 거는 어디 있으며 배를 안 탄 거는 어디 있는가. 파도친 거는 또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안에서 빙글이 웃음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관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사히 배는 지나갈 수 있고, 무사히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자체 모두가 거쳐 오면서 지내 내려온 근본 당처를 알아야 할 텐데, 그 당처를 모르고 항상 '식가모니불!' 또 '관세음보살!' 이렇게 바깥으로만 찾을 때에 항상 위로 모 습만 찾지, 누구나가 안으로 들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항상 바깥으로 보려고 인간힘을 쓰고, 내가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써 만날 자기는 속 빼 놓고 찾았다 이라는 겁니다.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부처님 소리를 언제

나 보고 언제나 듣나 하는 그 관념 속에서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이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보이는 거, 나를 끌고 다니는 거, 내 몸 끌러다니는 거, 몽땅 주인공이라는 그 하나를 세워 놓고 선 물룩 거기다 다 놔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이 하나만 들어졌으면, 이 지구가 지금 관이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몽땅 집어넣을 것도 또 빼낼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관 속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관 속에 없는 양 생각을 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꼭 깨달고야 말겠다는 그 말조차, 이름조차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뒤편이기 때문에 그건 깨닫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난 깨달아야겠다!' 이라고 인간힘을 쓰면 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가 없이 그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내 마음 자체가 전부 옹광로라고된 생각하세요. 옹광로에서 재생돼서 자동적으로 나가기에 하려면 옹광로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놔야 그냥 스스로 녹아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바퀴요, 옹광로요, 바로 자기발전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의심치 말고 거기다 맡겨 놓고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답: 지금 한국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미국보다는 적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아

대접밖에는 못 받겠구나."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니까 개 대접밖에 못 받지, 무슨 사람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이면 사람 대접을 받고, 개는 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 개에게 한 수 일러 주었어요. "너, 한생각이면 사람이 될 거야. 한 참나야!" 하고요. 내 마음을 그 마음에 명경알처럼 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 시간이 못 돼서 그 개는 죽어 버렸죠.

여러분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소나 개라 합지라도 주인공에, 한생각에 둘 아니게 넣어 준다면 그대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소는 한 찰나에 인간으로 환생하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아프지도 않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 찰나의 환생이라는 게... 그래서 '생사에도 그달리지 말아라. 생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달리지 말아라. 여여하다. 들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영원한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찰나에 내가 바다를 다 삼킨다 하더라도, 일체 만물을 날어도 날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영에다가 영을 넣는다고 해서 두드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집어지고 나온 업식을 녹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부입니다

원에 맡겨진 예들 중 많은 아이들이 이혼한 가정에서 생겨난 아이들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답: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개 한 마리가 밧이 빠져 가지고 그냥 퍼들 줄줄 흘리면 서 어쩔 수가 없이 살아갔고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언제 거기를 잠시 들렀다가 그 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봤니까 속은 사람이었고 거죽은 개였어요. 내가 꺾일 웃으면서 "너 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니까, 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해서 영이라고 해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소의 영을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소가 아니에요. 영, 영입니다. 소가 수십 마리 있는데 수십 마리의 근본을 내 근본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구!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무슨 병이라고 내보내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보라고 하고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올 때 "내가 의사와 아니고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이 지극하면 전지중과 전지중이 맞닿는 순간에 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 게 아니고 나도 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이다.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다. 내가 없다면 너도 없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소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이렇습니다. "네가 잘못든 못났든 내가 너고 내가 나니까 무조건 뛰어넘어라. 점프를 해라. 믿는 마음이라면 그 통 안을 벗어날 수 있다. 진짜 감응이 된다. 진짜 너를 찾을 수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쉽다 아주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몇 백 년을 가도 못 벗어날 겁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딱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아휴! 천차만별이라더니 참 기가 막히구나. 우습구나.' 이런 생각이 날 때에는 고개를 돌리면서 빙그레 웃고 돌아설 때도 있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어쩔 바를 몰라서 남들 볼까 봐 감추고 고개를 돌릴 때도 많습디다. 나는요. 내일 죽는다 나중에 죽는다 이런 것도 겁 안냅니다. 아무것도 겁이 안 납니다. 혼환이가 된다 하더라도 겁도 안 납니다. 왜 겁이 안 나느냐. 권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가 타쳐도 팔짱끼고 있지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참삼도 안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마음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얼른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굴러서 잘 응용하기를 바라면서, 또 생활 속에서 남들이 잘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바가지 끊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 맡겨 놓으세요. 아, 백년가약을 한 친구로 만났는데, 친구와 캠핑을 와서 지금 한바탕 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러니 아주 부드럽게 말도 하고 행도 하면서 '너만이 그러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그렇게 해 주란 말입니다. 또 남편도 역시 부인한테 그렇게 하구요.

나는 지금 남편이나 부인들이 어떠한 문제로 나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편을 보고 이러한 사람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 후에 알았던 견해, 곤충에 이르러까지 전부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습이 돼있어요. 아주, 그래 가지고 발목이 묶여 가지고 그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새끼를 만 개도 낳고 천 개도 낳고, 그저 열 개도 낳고 그러면서 그냥 세세 생생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항아리 속에 갇혀서 말입니다.

우리가 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다가 가겠습니까? 요 모습을 가지고는 백 년을 살겠습니까. 천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는 그 찰나에 그냥 다른 모습으로 돼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아니, 어렵하자고 그렇게 삼니까. 한 생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런 습은 좀 버리고 우리가 참답게 참인생을 살고 진짜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비로 한생각으로, 얘기해 드린 것을 굴러서 큰 금덩어리의 빛을 만들든지, 우주를 가고 읍이 없이 가고 오면서 그냥 한생각으로다가 크게 이루어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자유니까요.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삶은 고풀이 아니다' (Life is not suffering). The text includes '시간순간이 고풀' (Time and moment are suffering),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A message of hope from a great master), and '삶은 고풀이 아니다' (Life is not suffering). It also mentions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 031-470-3116)와 전화(031-470-3116)로 연락 바랍니다.' and 'A5신 288쪽, 값 6,000원, 예시이문'.